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화려한 막 올라

5일 무주등나무운동장서 개막식 갖고 9일까지 개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 등 진행

무주의 초여름 속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진행하고 있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5일 저녁 7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손꼽히는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열렸다.

먼저, 무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단체 무주군민합창단과 국악예술단 시엘의 사전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개막식에는 9년째 사회를 맡고 있는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가 놀라운 입담과 호흡으로 무주산골영화제의 열 두 번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넥스트 액터의 주인공인 배우 고민시 역시 개막식에 참여해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을 함께 축하하며 '넥스트 액터' 셀프 트레일러를 최초 공개했다.

그리고 '장' 섹션 상영작의 심사위원 곽신애 대표(前 바른손이엔에이 대표이사, 現 영화사 수목원 대표), 조현철 감독(〈너와 나〉 연출), 한준희 감독(〈차이나타운〉, 〈D.P〉, 〈악한영웅 Class1〉 크리에이터 등)이 참석해 심사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개막식과 함께 영화제를 열 개막작은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로 장건재 연출, 고아성 주연의 '한국이 싫어서'를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만을 위해 라이브 공연을 결합해 특별하게 만든 융복합영화공연이다. '한국이 싫어서: 라이브'는 이 영화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뮤지션 김뜻돌과 기타, 베이스, 드럼 등 개성 있는 세션들이 영화 속 다양한 음악들과 내레이션을 개막식 현장에서 직접 라이브로 들려주며 영화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고 영화가 가진 감성과 메시지를 한층 배가시켰다.

한편 9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중인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총 21개국 96편의 영화와 함께 콘셉트별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구성된 무주 곳곳의 실내외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 이벤트들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전북의 예술, 모두의 관광'

제1회 전북자치도 예술관광상 공적 아카이브 전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하얀양옥집(구 도지사관사)에서 '제1회 전북자치도 예술관광상 공적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예술·관광인 및 단체 11인의 공적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전북의 예술, 모두의 관광, 전북 곧 글로벌리티'를 주제로 전북의 예술과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를 자원으로 삼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상자들의 공적 및 활동 소개, 인터뷰 영상, 작품 등이 1층 문턱과 야외마당에 전시된다.

개막식은 오는 7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수상자인 '예우'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축사, 수상자 소감 발표, 전시 공간 라운딩, 만찬 등의 행사가 준비됐다.

제1회 전북자치도 예술·관광상 수상자 11인은 △디자인에보(디자인, 문화예술기획),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무형유산 보존, 전통문화공연), △심재균(인형극 및 축제기획), △아크빌(관광진흥), △양진성(전통공연예술), △예우(클래식공연, 발달장애인 음악), △이기홍(서양화), △이종근(문학사학), △이흥재(사진), △전주소년소녀합창단(어린이·청소년 합창), △전호갑(석공예)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재단의 첫 도지사상 수상자를 선정해 선보이는 전시를 도민의 품으로 환원한 하얀양옥집에서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예술과 관광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15일 어린이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6월 야간개장 문화공연으로 어린이 대상의 마당극 '도깨비가 준 선물'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주는 교훈을 선사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시작된다.

특히 속담잔치마당, 이야기마당, 전통 연희마당 등 색다른 장면들이 짧은 마당식 구성으로 이뤄져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움과 울림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속담잔치마당에서는 관객들이 '속담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속담문제를 푸는 등 참여도 가능하다.

예약은 5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5일 K콘텐츠 활용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콘텐츠 활용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

한국전통문화전당, 5개 기관과 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5일 K콘텐츠 활용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사장 박기홍),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싸울아비 공연단(단장 이숙경) 등 모두 6개 기관이 손을 맞잡고 K콘텐츠 활용 관광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K콘텐츠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한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촉진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협조 등에 협력키로 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와 한식, 한복, 전통놀이, 수공예 등 전당이 보유한 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주중과 비수기를 활용해 전주-완주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로 '2024년은 전북여행 1억명 가즈아!' 캠페인을 이어간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전북 웰니스 의료관광 및 K-의료의 해외진출을 통해 향후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의료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며,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0여 명 규모의 중국인 태권 교류 등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싸울아비 공연단은 지난 4월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BGT에서 최종 10팀으로 선정되는 등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채만식문학관 기획전시

'가락加樂 군산' 개최

채만식문학관(이하 문학관)이 지난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문학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 '가락加樂 군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민중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민요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각 파트마다 우리의 민요 역사를 배우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먼저 1부 '군산의 가락'에서는 민속학자 박순호에 의해 채록되어 전해지는 군산의 민요를 QR코드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부 '민요의 새바람, 신민요'에서는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노래하였던 민요가 일제강점기 새롭게 등장하는 신민요를 통해 보편화 · 대중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 3부 '가락을 잇다'에서는 민요를 기억하는 이들의 고령화 등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민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채만식문학관 관계자는 "민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현재에도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선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민요를 감상하며, 민요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켜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문학관 기획전시 '가락加樂 군산'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인 '민요 무드등 만들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예술인 성 평등 인식 개선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5~19일 15일간 '2024 예술인 성 평등 인식 개선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도내 예술인들이 성 평등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시설)로, 총 5개 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공모 선정 시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사비, 커뮤니티 활동비, 홍보비 등 사업 경비를 지원하며,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1회 이하(씨앗형)인 경우 300~400만원, 2회 이상(새싹형)인 경우 400~5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공모 유형은 문화예술단체가 성 평등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의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토론 방식의 '소모임(커뮤니티)형'과 기획, 창작, 전시, 공연, 출판 등 성 평등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형'이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안숙선 명창 여정서 풍류 여정 공연

8 · 22 · 29일 저녁 7시 30분

판소리의 본향 남원시가 오는 8일, 22일, 29일 저녁 7시 30분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신명나는 풍류 여정 공연을 펼친다.

이번 풍류 여정은 판소리, 민요는 물론 사물놀이, 퓨전공연, 택견, 난타 등으로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8일에는 국악브라스밴드 '시도'의 사물놀이, 시립청소년국악단 판소리 민요를 공연하고, 22일은 전통 판소리를 택견과 함께 선보이며, 크로스오버밴드 '연'의 퓨전음악도 준비되어있다. 마지막 29일은 타악연희원 '아퀴' 난타공연으로 풍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소리의 본고장 남원에서 "판소리와 더불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택견과 판소리의 협연, 타악과 퓨전공연을 펼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리의 흥과 멋을 한껏 즐길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단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선정' 연석산 우송 미술관

완주 거점 '우마 레지던스' 추진

기획전시 'WooMA ON-AIR Exhibition 2024', 내일부터 28일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석산 우송 미술관(관장 문리)이 완주군을 거점으로 'WooMA Artist in Residence(우마 레지던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지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북형 레지던시 활성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거주형에 2개 단체, 비거주형에 2개 단체를 선정했다.

지난 5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거주형에 선정된 연석산 우송 미술관은 전국 8대 오지로 손꼽히는 완주군 동상골에 위치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으면서도 전주역에서 불과 25분 거리에 있어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미술관이다.

연석산 우송 미술관은 지난 2018년부터 '우마 레지던스'를 운영하며, 유망한 작가 발굴 및 국내외 교류를 통한 인큐베이팅,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매년 지역민을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상면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상골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연석산 우송 미술관은 온라인 입주작가 공모를 통해 약 40건의 신청 접수를 받았다.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김나연, 소찬섭, 양원핑, Rania Alam, 임규보, 신가혜 등 유망한 작가 6인을 최종 선정했다.

작가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연석산 우송 미술관에서 거주하며 동시대 미술 특강, 평론가 매칭, 개인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연석산 우송 미술관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WooMA ON-AIR Exhibition 2024(우마 온에어 기획전시 2024)'로, 입주작가 각자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창작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획전이다.

기획전시 'WooMA ON-AIR Exhibition 2024'는 오는 8일부터 7월 5일까지 28일간 연석산 우송 미술관(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118-22) '송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석산 우송 미술관 설휴정 큐레이터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이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며 긍정적 가치지점에 도달하길 기대한다"며 "관객들이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미술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예술적 여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4) 및 연석산 우송 미술관(063-244-2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20일 국회서 상영

'윤시내가 사라졌다'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열리는 6월 국회문화극장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윤시내가 사라졌다'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윤시내가 사라졌다'는 가수 윤시내가 실종된 후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로, 주연 배우 오민애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온피프엔 후원)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문화극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김진화 감독, 오민애·이주영 배우, 윤시내 가수가 참석하는 무비토크를 진행, 모더레이터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문석이 맡는다. 또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인 포스터 증정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국회문화극장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세 편을 더 선보일 예정이다. 6월 국회문화극장 예매는 온라인으로 진행, '대한민국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ation.assembly.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사무처와 문화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두 번째 상영 프로그램 '6월 국회문화극장'에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상영작 '윤시내가 사라졌다'가 상영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